

# 한국어 ‘에서’ 주어에 대한 연구

김상민(연세대)

## 1. 서론

조사 ‘에서’는 주시경(1910: 76)에서 처음으로 ‘덩이임만’으로 제시된 이후 오랫동안 국어학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다음의 예는 ‘에서’ 주어 구문의 전형적인 쓰임이다.

(1) 관계 부처에서 내수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주어 구문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크게 다음의 세 갈래로 정리될 할 수 있다.

(2) 가. ‘에서’ 주어의 의미역에 관한 것<sup>1)</sup>

나. ‘에서’ 주어의 유형에 관한 것

다. ‘에서’ 주어의 주어성에 관한 것

‘에서’ 주어와 관련한 (2)의 세 주제에 대해서는 각각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에서’ 주어의 의미역(2가)으로는 행위주가 주로 제시되어 왔지만 경험주나 피행위주 또한 제시된 바 있고, ‘에서’ 주어의 유형(2나)으로는 단체 명사가 주로 제시되어 왔지만 처소 명사나 문서, 방송 프로그램 등 또한 제시된 바 있다. ‘에서’ 주어의 주어성(2다)에 대해서는 ‘에서’ 성분의 주어성을 인정하는 의견과 그렇지 않은 의견이 최근까지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2가)와 (2나)의 문제에 대해, 기존 논의에서 주로 제시되어 왔던 행위주와 단체 명사 외의 것들이 ‘에서’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지를 예문을 통해 확인하고 그러한 쓰임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2다)에 대해서는, ‘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지만 그러한 목록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기보다는 다양한 연구에서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온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들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2다)의 문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에서’ 주어 구문에 숨은 주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1)의 문장에는 ‘관계 부처’의 구성원이 진정한 주어로서 숨어 있고, 따라서 ‘에서’ 성분은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숨은 주어를 복원하였을 때 문장의 의미가 복원하지 않은 문장과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sup>2)</sup> 따라서 ‘에서’ 주어를 복원한 문장은 그렇지 않은 문장과 의미가 동일하다는 의견(이정택 2010)과 동일

---

1) 주어의 의미역은 서술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김민국 2017: 171), ‘에서’ 구문의 서술어에 대한 제약은 ‘에서’ 주어의 의미역에 대한 제약을 다른 방향에서 살펴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에서’ 구문의 서술어에 대한 기존의 연구 역시 ‘에서’ 주어의 ‘의미역’에 대한 연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이처럼 의미적으로 ‘에서’ 성분의 주어성에 대해 논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 통사적으로 ‘에서’ 성분의 주어성에 대해 논한 연구 또한 존재한다. 이정택(2010:202-5)에서는 ‘복수표지 ‘-들’의 분포’,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시’와의 호응’, ‘재귀사 결속’이라는 세 가지 통사적 기준으로 ‘에서’ 성분이 문장의 통사적 주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Song(1995:771-781)에서는 ‘대명사의 관리자(controller of PRO)’, ‘복수 표지 복사(Plural copy)’, ‘대용 동사구(VP anaphora)’, ‘주체 높임(Subject honorification)’, ‘병렬(Coordination)’, ‘재귀사 ‘자신’에 선행(antecedent of the reflexive casin)’이라는 여섯 가지 통사적 기준으로, 김민국(2017:149-154)에서는 ‘관계

하지 않다는 의견(황화상 2006, 김민국 2017)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 또한 ‘에서’ 주어 구문의 연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에’ 주어 구문과 관련한 (2)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 기존 연구들의 주장을 정리하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 2. ‘에서’ 주어의 의미역

‘에서’ 주어가 부여받을 수 있는 의미역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행위주(agent)이다.

(3) 가.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나. 환경단체에서 직접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나섰다.

다. 축구 협회에서 떠나는 히딩크 감독을 붙잡았다.

(3)의 예들은 ‘에서’ 주어가 행위주로 쓰인 것들이다. 이처럼 ‘에서’ 주어가 행위주의 의미역을 부여받는 것은 ‘에서’ 성분의 전형적인 쓰임이 출발점(source)의 의미역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에서’가 부사어에 결합할 때에, 출발점의 의미역을 나타낼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4) 철수는 학교에서 오고 있다.

(4)의 ‘에서’는 출발점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쓰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떠한 행위의 출처를 그 사건의 행위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고(김현주 2015: 75), 출발점을 나타내는 탈격 표지가 행위주 표지로 발달하는 것은 범언어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다(김민국 2017: 166-7). 따라서 (3)의 ‘에서’ 주어는 행위의 출발점인 동시에 행위주로 인식될 수 있고, 출발점을 나타내던 ‘에서’가 행위주를 나타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출발점을 나타내는 표지 ‘에서’가 행위주 또한 나타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에서’ 주어가 행위주의 의미역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박양규(1972: 37-45)는 행위주가 아닌 한 ‘-에서’가 결합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생각은 황화상(2006)으로 이어진다. 김양진(1999: 943)의 ‘에서’ 주어가 ‘주다, 보내다, 심의하다, 모집하다’ 등의 일부 타동사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좋아하다, 떠나다, 먹다’ 등의 다른 타동사 앞에서는 제약이 많고, 자동사나 형용사 앞에서는 절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최재희(2004: 115)의 ‘에서’ 구문의 쓸어가 [행동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에서’ 주어가 경험주로 쓰이는 예들이 관찰된다. 박양규(1975)와 김민국(2017)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에서’ 주어가 경험주의 의미역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5) 가. 선수단에서는 이번 일이 흡족한가 봐. (박양규 1975: 97)

---

화’,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시’와의 호응’, ‘복수표지 ‘-들’의 분포’, ‘재귀사 결속’, ‘복문에서 생략된 동일 명사구의 지시’라는 다섯 가지 통사적 기준으로 ‘에서’ 성분이 문장의 통사적 주어임을 증명하고 있다. ‘에서’ 성분의 주어성에 대한 통사적 검증은 이들 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고에서는 ‘에서’ 주어 구문의 숨은 주어 문제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

- 나. 우리 정부에서는 북측의 제안이 적잖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 다. 이제는 여당에서도 서서히 여론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 라.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팀에서도 실패는 여전히 무서웠다.
- 마. 검찰에서도 그를 구속 수사하는 것이 겉끄럽고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 바. 회사에서도 그런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다.
- 사. 우리 쪽에서는 우리를 간섭하던 그가 알미웠지만 싫지만은 않았다. (이상 김민국 2017: 170)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에서’ 주어는 경험주의 의미역을 나타내는 데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에서’ 주어가 경험주의 의미역을 부여받는 것은 ‘에서’ 성분이 장소의 의미역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에서’가 부사어에 결합할 때에는 출발점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장소의 의미역 또한 나타낼 수 있다.

- (6)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지었다.

Landau(2002)에 따르면 심리 술어 구문에서 경험주는 ‘정신적 처소(mental locative)’에 해당된다고 하며, 즉 정신적인 혹은 심리적인 영향이 미치는 곳이나 머무르는 곳이 바로 경험주이다(이윤미 2014에서 재인용). 따라서 (5)의 ‘에서’ 주어는 정신적인 혹은 심리적인 영향이 미치는 장소인 동시에 경험주로 인식될 수 있고, 장소를 나타내던 ‘에서’가 경험주를 나타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하는 다른 예는 한국어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에게’ 주어가 그것이다.

- (7) 나에게서는 호랑이가 무서웠다. (심유경 2016: 36)

(7)의 ‘에게’ 역시 애초에는 장소를 나타내던 표지가 경험주를 나타낸다. 그런데 ‘에게’ 주어와 관련하여 (5다)의 ‘에서’ 주어는 그 의미역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 (5') 가. 선수단(에서/에게)는 이번 일이 흡족한가 봐.

- 나. 우리 정부(에서/에게)는 북측의 제안이 적잖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 다. 이제는 여당(에서/\*에게)도 서서히 여론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 라.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팀(에서/에게)도 실패는 여전히 무서웠다.
- 마. 검찰(에서/에게)도 그를 구속 수사하는 것이 겉끄럽고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 바. 회사(에서/에게)도 그런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다.
- 사. 우리 쪽(에서/에게)는 우리를 간섭하던 그가 알미웠지만 싫지만은 않았다.

(5')의 주어가 모두 경험주를 나타낸다면, (5다)에서만 ‘에게’가 결합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5다)의 서술어가 나머지 서술어와 다른 점은 타동사라는 것이다. 이처럼 ‘에게’ 주어가 심리를 나타내는 타동사 구문에 사용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연재훈(1996), 목정수·이상희(2016) 등 다양한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다. 김민국(2017)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에게’ 성분의 낮은 타동성과 연결시켰다. 즉 ‘에게’ 주어는 타동성이 약하여 대상역 논항이 ‘이/가’로 실현되는 심리 술어 구문에서만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현경(2004)에 따르면 (5다)의 서술어 ‘느끼다’는 심리를 나타내는 용언 중 타동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심리 용언 자체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유현경(2005)에서는 심리용언은 행위성이 없어서

명령형, 청유형이 불가능하고 주어의 2·3인칭 제약이 있으며, 진행상이 불가능하다고 서술하였다.

- (8) 가. 여론의 두려움을 느껴라.
- 나. 여당은 여론의 두려움을 느낀다.
- 다. 여당은 여론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8)에서 서술어 ‘느끼다’는 명령형으로도 나타나고(8가) 3인칭 주어로도 나타나며(8나) 진행상 또한 가능하다(8다). 따라서 심리를 나타내는 타동사는 심리용언이 아니고, 이 경우의 주어 역시 경험주가 아니라 행위주라는 것이다.

유현경(2005)의 주장처럼 심리를 나타내는 타동사문의 주어를 경험주가 아니라 행위주로 분석하는 것의 장점은 (5다)에서 ‘에게’ 주어가 나타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5다)의 주어는 경험주가 아니라 행위주이므로 경험주만을 나타내는 ‘에게’ 주어로는 나타낼 수 없고 행위주를 나타낼 수 있는 ‘에서’ 주어로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박양규(1975)와 이정택(2010)에서는 ‘에서’ 주어가 피행위주의 의미역을 부여받는 피동문의 예들이 제시되었다.

- (9) 가. 이번 사태로 정부에서 궁지에 몰리겠지? (박양규 1975: 99)
- 나. 이번에는 순회 쪽에서 잡혀 들어가겠는데요.
- 나. 입법부에서도 결국 이 일에 휘말리겠지.
- 다. 인사위원회에서 당하고만 있을까? (이상 이정택 2010: 200)

피행위주는 황화상(2006) ‘에서’ 주어가 가지지 못하는 의미역으로 언급되었던 것이다. 김민국(2017ㄴ: 169-170)에서는 ‘에서’ 주어가 피행위주의 의미역을 부여받는 것을 인정했지만, 피동문 중에서도 ‘받다’, ‘되다’, ‘당하다’에 의한 피동문에서만 그러한 예들이 성립하여 피행위주 제약은 매우 강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10) 가. 그쪽에서도 우리에게 당하고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 나. 이번에는 법무 팀에서도 검찰에 소환될 것 같습니다. (이상 김민국 2017ㄴ: 169)
- (11) 가. 그 사건으로 인해 각 봉사 단체(\*에서/가) 점점 외해되고 있다.
- 나. 우리 회사(\*에서/가)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 다. 계속 그런 행동을 하니 그쪽(\*에서/이) 계속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잖아요.<sup>3)</sup>
- 라. 사고 대책반(\*에서/이) 이쪽에서도 배치될 것 같습니다. (이상 김민국 2017ㄴ: 170)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에서’ 주어가 피행위주의 의미역을 받는 데에 일정한 제약이 있는 것은 확실한 듯하지만, (9가, 나, 다)에서처럼 ‘받다’, ‘되다’, ‘당하다’ 피동문이 아닌 접미사 피동문에도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 결국 ‘에서’는 피행위주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피행위주 표지로서의 지위가 상당히 불안정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목적어 있는 피동문에서 찾고자 한다.

- (12)<sup>4)</sup> 가. 정당에서 꼬리를 밟혔다.

3) (11나, 다)의 문법성에 대해서는 제고의 여지가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한 내용은 김민국(2017ㄴ) 각주 19에 언급되어 있다.

- 나. 영희 집에서 안방을 털렀대.
- 다. 베트남에서 당시 영토를 무참히 빼앗겼다.
- 라. 우리 팀에서 딱지를 떼었다.
- 마. 칠공주과에서 뺨을 뜯겼다.

(12)의 목적어 있는 피동문에서는 ‘에서’ 주어가 피행위주의 의미역을 부여받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다. (12)의 문장에서 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체는 목적어이므로, 이때의 ‘에서’ 주어들은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는 경험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보았던 ‘에서’ 주어의 경험주 표지로서의 쓰임이 (12)와 같은 목적어 있는 피동문의 주어를 표시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쓰임이 (9)와 같은 목적어 없는 피동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 3. ‘에서’ 주어의 유형 - 유정성 획득의 방법을 중심으로

2장에서 우리는 ‘에서’ 주어의 의미역으로 행위주, 경험주, 피행위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중 피행위주를 나타내는 쓰임은 불안정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에서’ 주어가 안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의미역은 행위주와 경험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에서’는 무정물에 결합하는 조사인데(박양규 1975: 97-98) 행위주와 경험주는 전형적으로 유정물이 가질 수 있는 의미역이라는 점이다. ‘에서’가 무정물에 결합한다는 사실은 기원적 쓰임인 부사어에 결합하는 경우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 (13) 가. 글이란 곧 나의 생각에서 출발해 남에게 가는 길이다.
- 나. 글이란 곧 나에게서 출발해 남에게 가는 길이다

(13가)의 무정물에는 ‘에서’가 결합할 수 있지만 (13나)의 유정물에는 ‘에서’ 대신 ‘에게서’가 쓰이는 것이다. 이처럼 ‘에서’가 무정물에 결합하는데 그 의미역은 유정물이 나타낼 수 있는 행위주와 경험주라는 사실은, ‘에서’와 결합하는 무정물이 유정성을 획득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무정물을 유정물로 인식하는 데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인지 과정은 은유(metaphor)라고 할 수 있다. 은유란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인지과정으로, 유정물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는 무정물은 유정물로 은유될 수 있다. 환유(metonymy) 또한 무정물을 유정물로 인식하는 데 사용되는 인지 과정이다. 환유란 두 대상 사이의 인접성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인지과정으로, 유정물과 인접한 무정물은 유정물로 환유될 수 있다. ‘에서’ 주어가 되는 무정물들 또한 은유와 환유의 방법을 통해 유정성을 획득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에서’ 주어가 유정성을 획득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살펴보려 한다.

#### 3.1. 환유를 통해 유정성을 획득하는 ‘에서’ 주어

‘에서’ 주어의 유형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온 것은 단체 명사이다. 단체 명사는 주시경(1910: 76)에서 ‘에서’가 덩이임만으로 소개된 이후, 주어 자리에 쓰이는 ‘에서’를 관찰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언급되어 왔다.

4) 예문을 제공해 주신 연세대학교 정예은 선생님께 감사를 표한다.

- (14) 가.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나. 환경단체에서 직접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나섰다.  
 다. 관계 부처에서 내수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 축구 협회에서 떠나느 허딩크 감독을 붙잡았다.

무정물인 단체 명사가 유정성을 획득하는 방법은 전체로 부분을 지시하는 환유를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박재연(2014: 12)에 따르면 추상적인 조직과 그 구성 요소 사이에는 부분 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전체로 부분을 지시하는 환유가 나타날 수 있다.

- (15) 영문과가 아직 안 왔다. (박재연 2014: 12)

(15)의 ‘영문과’는 ‘영문과 교수/학생/직원’ 등 영문과에 속한 사람을 지시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환유가 (14)의 ‘에서’ 주어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단체를 통해 해당 단체에 속한 사람을 지시함으로써 유정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Yamamoto(1999: 18)에서 인간 조직(organisations)을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 역시 이러한 환유가 매우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에서’ 주어의 두 번째 유형은 처소 명사이다. 박양규(1975), 성광수(1979) 등에서는 ‘에서’ 성분을 단체 명사로 볼 수 없는 예를 제시하였다.

- (16) 가. 저쪽에서는 소주가 좋으시대요. (박양규 1975: 100)  
 나. 너희들 두 사람 가운데 어느편(쪽)에서 먼저 때렸나? (성광수 1979: 70)  
 다. 영화를 틀어 줬더니 거기서는 싫어하던데, 여기서는 좋아하네요?  
 라. 이쪽에서 말 좀 할게요.

(16)의 처소 명사들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단체 명사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성광수(1979: 70)은 이러한 예를 포함하기 위해 ‘에서’ 주어는 ‘사람이 포함되는 처소’ 명사구일 때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14)의 단체 명사 또한 사람을 포함하는 추상적인 처소로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처소 명사는, 해당 처소에 포함되는 개체가 복수인 경우에 단체 명사와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 (17) 가. 영자집에서 은희에게 생일 선물을 보냈다. (성광수 1979: 70)  
 나. 서울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버스환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다. 유럽에서는 가솔린보다 디젤을 더 선호한다. (이상 김민국 2017: 161)  
 라. 두바이에서는 원유 산업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 예측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했다.  
 마. 동물원에서는 침 흘리는 판다를 아프다고 생각했다.

(17)과 같은 ‘에서’ 주어들은 모두 구체적 처소로 표현된 ‘단체’나 ‘기관’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김민국 2017: 162) 때문이다.

그러나 처소 명사들은 단체 명사와 달리 엄밀한 의미에서 실제 지시 대상과 전체 부분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박재연 2014: 13). 예를 들어 (17가)의 ‘영자집’은 ‘문, 지붕, 창문’ 등 집의 구성 요소와 전체 부분 관계를 이루며, ‘영자집에 사는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집’의 일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16-17)의 처소 명사들은 유정성을 획득하는 방식 또한 단체 명사의 그것과는 차이가 난다.

처소 명사들이 유정성을 획득하는 방식은 장소로 그 근처의 사람을 지시하는 환유로 볼 수 있다. 장소로 그 근처의 사람을 지시하는 환유 또한 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견된다.

(18) 벤치와 선수들이 이성을 잃고 흥분돼 있었다. (임지룡 2006: 284)

(18)의 ‘벤치’는 ‘벤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지시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환유가 (16-17)의 ‘에서’ 주어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구체적 처소를 통해 해당 처소 근처에 있는 사람을 지시함으로써 유정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Yamamoto(1999: 18)에서는 지리적 개체(geographical entities) 또한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에서’ 주어의 세 번째 유형은 창작물 명사이다. Song(1995, 2011)에서는 ‘문서(Document)’를 나타내는 명사구가 ‘에서’와 결합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19) 가. 보고서에서 그 문제를 지적했다. (Song 1995: 776 참고)

나. 김민국(2009)에서는 ‘(이)서’를 보조사로 보았다.

다. 우리 헌법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 김민국 2017: 160)

라. “연필”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듯이 “흑연가루를 가늘고 길게 굳혀 그것을 나무속에 넣 만든 글 쓰는 붓”이라는 점….

마. 책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현실 일본어.

이후 이윤미(2014: 43)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이 ‘에서’ 주어로 나타나는 다음의 예문 또한 제시되었다.

(20) 지난 4월 MBC ‘PD수첩’에서 ‘모 기도원의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본고의 관찰에 의하면 문서나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창작물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에서’ 주어로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다.

(21) 가. 이 영화에서는 조금씩 변화하는 주인공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한다.

나. 이 연극에서는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성장통과, 사람 관계 등을 주제로 삼고 있다.

(19-21)의 ‘에서’ 성분은 유정성을 획득하는 방식이 모두 동일하다. 이때의 ‘에서’ 성분은 모두 누군가의 창작물을 나타내는데, 생산품(product)을 통해 생산자(producer)를 지시하는 환유를 통해 유정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 생산자와 생산품은 개념적으로 매우 인접하므로(kövecses 2010: 173, 박재연 2014: 21), 생산자를 통해 생산품을 지시하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흔히 발견된다.

(22) 가. I’m reading shakespeare.

나. She loves Picasso.

다. Does he won any Hemingway? (이상 kövecses 2010: 172)

(22)의 shakespeare와 Picasso, Hemingway는 모두 이들의 창작물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생산품을 통해 생산자를 지시하는 환유 역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표현들이 (19-21)의 ‘에

서' 주어라고 볼 수 있다. (19-21)의 '에서' 주어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유정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 3.2. 은유를 통해 유정성을 획득하는 '에서' 주어

'에서' 주어의 네 번째 유형은 출발점의 의미를 지니는 처소 명사이다. 김민국(2017: 165)에서는 출발점의 의미를 지니는 처소 명사가 '에서' 주어로 나타나는 예들이 제시되었다.

- (23) 가. 태양에서는 매일 엄청난 에너지를 우주에 방출하고 있다.
- 나. 남극에서는 매년 엄청난 얼음을 지구에 공급한다.
- 다. 충을 맞은 팔에서는 붉은 선혈을 분수처럼 뿜고 있었다.
- 라. 발에서는 진한 거름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23)의 '에서' 주어들은 모두 처소로 해석될 수 있지만 유정성이 높은 개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16-17)의 일반적인 처소 명사들과는 차이가 난다. 동일한 이유로 이들은 환유를 통해 유정성을 획득할 수도 없다.

김민국(2017: 166)에서는 (23)의 '에서' 주어들이 유정성을 획득하는 방법들 '출발점'과 '행위주' 사이의 은유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23가)의 '태양'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탈격의 성격을 띠는데, 이러한 출발점의 의미가 실제 문장에서는 행위주처럼 표현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어떠한 행위의 출처를 그 사건의 행위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음은 2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이때, '에서' 주어가 행위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유정물이어야 하므로 '태양'은 유정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3)의 출발점의 의미를 지니는 처소 명사들은 유정성을 먼저 획득한 이후에 행위주의 의미역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주의 의미역을 먼저 부여받은 후 유정성을 획득한다.

그런데 본고의 관찰에 의하면 (23)을 제외하고도 은유를 통해 유정성을 획득하는 '에서' 주어는 더 존재한다.

- (24) 가. 컴퓨터에서 입력 자료를 기억하고 정보로 나타낸다.
- 나. 내비게이션에서 길 안내를 시작한다.
- 다. 포토샵에서 작업을 중단합니다.
- 라. 유튜브에서는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하여 추천 영상을 상단에 배치시킨다.
- 마.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대장에서 자동으로 음식의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한다.
- 바. 특정 장기에 문제가 생길 때 뇌에서는 어떤 곳에서 통증이 생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신경을 공유하는 다른 부위가 아프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24)의 '에서' 주어들은 모두 일정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을 작동 명사라고 부른다면, 작동 명사는 그 작동 방식이 인간의 행동과 유사할 때 인간으로 은유될 수 있다. Yamamoto(1999: 18)에서도 작동 명사 중 인간처럼 작동하는 현대의 기계(modern machines which operate in a rather human way)는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24)의 작동 명사들은 인간으로의 은유를 통해 유정성을 먼저 획득한 이후에 행위주의 의미역을 부여 받는다는 점에서 (23)과는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단체 명사나 처소 명사가 아니더라도, 환유나 은유를 통해 유정성을 획득하여 행위주나 경험주의 의미역을 부여받을 수 있는 명사라면 '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에서’ 성분의 주어성

3장에서 우리는 ‘에서’ 주어가 환유와 은유라는 기제를 통해 유정성을 획득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모든 종류의 ‘에서’ 주어들이 균형 있는 관심을 받아온 것이 아니다.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환유를 통해 유정성을 획득하는 단체 명사에 한정되었다.

단체 명사는 전체로 부분을 지시하는 환유를 통해 그 구성원을 지시함으로써 유정성을 획득했다. 뿐만 아니라 환유를 통해 유정성을 획득하는 다른 주어들도 모두 장소 근처에 있는 사람, 창작물의 창작자 등 그와 관련한 누군가를 상징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에서’ 구문의 진정한 주어는 ‘에서’ 성분이 아니라 문장에 나타나지 않는 ‘누군가’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sup>5)</sup>

이러한 주장은 박양규(1972)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양규(1972)는 조사 ‘에서’의 ‘서’가 기원적으로 ‘있다’의 부사형인 ‘이시어’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에서 착안하여 ‘에서’ 구분을 다음과 같은 문장의 변형이라고 주장하였다.

(27) 가. 외가에서도 왔어요. < x가 외가에 있어 x도 왔어요.

나. 우리 반에서 노래한다. < x가 우리 반에 있어, x가 노래한다.

‘에서’의 ‘서’가 ‘있다’의 부사형인 ‘이시어’에서 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이현희 2006, 김민국 2019 참고) 사실이므로, 본고에서 살펴보는 ‘에서’ 구문이 ‘x가 y에 있어 x가 z하다’ 같은 구성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에서’ 구문의 기원이 그러하다고 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문장에 실현되지 않는 x를 복원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다.

황화상(2006: 279-380)에서는 숨은 주어를 상징하기 어렵거나, 상징한다고 하더라도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다음의 ‘에서’ 구문을 제시하였다.

(28) 가. 정부에서 북한에 쌀을 지원했다.

나. 정부에서 경제계획을 발표했다.

(29) 가. 정부에서 대통령이/국무총리가/법무부장관이 북한에 쌀을 지원했다.

나. 정부에서 경제 관료가 경제계획을 발표했다. (이상 황화상 2006: 380 수정)

예를 들어 (29나)에서처럼 감추어진 주어를 드러낼 때에는 ‘발표하다’가 말 그대로의 (다른 사람 앞에서의) ‘발표’의 의미를 갖지만 감추어진 주어를 드러내지 않은 (28나)의 경우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려워서 두 문장의 의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황화상(2006)은 ‘에서’ 성분의 숨은 주어를 상징할 수 없고, ‘에서’ 성분이 주어를 나타내나고 보았다.

이에 대해 이정택(2010: 207)은 ‘에서’ 성분의 숨은 주어는 막연한 주어이므로 (29)와 같이 특정인을 주어로 상징해서는 안된다고 반론하였다. (28) 문장에 대해, 이정택(2010: 207-208)에서 제시한 적절한 숨은 주어는 다음과 같다.

(30) 가. 정부에서 당국자들이 북한에 쌀을 지원했다.

5) ‘에서’ 성분의 주어성에 대한 연구는 크게 ‘에서’ 성분의 숨은 주어와 관련된 것, 통사적인 주어성 검증 기제를 활용하여 ‘에서’ 성분의 주어성을 논한 것으로 나뉜다. 이 중 후자의 논의는 Song(1995: 771-781)과 이정택(2010:202-5), 김민국(2017: 149-154)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서는 숨은 주어와 관련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나. 정부에서 당국자들이 경제계획을 발표했다.

(28)의 문장들은 막연한 주어가 숨어 있는 (30)과 의미가 동일하므로, (28)의 문장은 (30)과 같은 숨은 주어가 있는 문장이며, ‘에서’ 성분은 주어가 아니라 처소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민국(2017ㄴ: 155-156)에서는 이정택(2010)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막연한 주어를 상정한 문장들이 그렇지 않은 문장들과 의미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1) 가. 우리 정부에서 직접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나. 우리 정부에서 당국자들이 직접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숨은 주어가 나타나지 않은 (31가)의 경우 ‘우리 정부’와 대안집합을 이룰 수 있는 ‘미국’이나 ‘중국’ 등의 다른 매개 없이 ‘우리 정부가 직접...’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반면, 숨은 주어가 나타난 (31나)는 ‘당국자’와 대안집합을 이루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의 매개 없이 ‘당국자가 직접...’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에서’ 구문에서 숨은 주어를 복원할 것인지의 문제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보았던 ‘에서’ 주어들 중 은유를 통해 유정성을 획득하는 예들을 고려하면, ‘에서’ 주어의 숨은 주어를 상정할 수 없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편의상 (24)의 예를 다시 제시한다.

(24) 가. 컴퓨터에서 입력 자료를 기억하고 정보로 나타낸다.

나. 내비게이션에서 길 안내를 시작한다.

다. 포토샵에서 작업을 중단합니다.

라. 유튜브에서는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하여 추천 영상을 상단에 배치시킨다.

마.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대장에서 자동으로 음식의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한다.

바. 특정 장기에 문제가 생길 때 뇌에서는 어떤 곳에서 통증이 생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신경을 공유하는 다른 부위가 아프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24)의 ‘에서’ 주어들은 그것과 개념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인접한 누군가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서’ 구문에서의 ‘에서’ 성분은 의미적으로 주어일 수밖에 없다.

## 5. 결론(생략)

### [참고문헌]

- 고영근 · 남기심(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김민국(2017ㄱ), 「여격 주어 논의의 쟁점과 방향」, 『형태론』 19(1), 80-119.  
김민국(2017ㄴ), 「‘에서’ 주어의 통사와 의미」, 『국어학』 81, 145-189.  
김양진(1999), 「의사 주어 ‘에서’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한국어학회 편, 『국어의 격과 조사』, 월인,

941-986.

- 목정수·이상희(2016), 「문두여격어 구문의 정체-여격주어 설정은 가능한가?-, <형태론> 18-2, 217-241.
- 박양규(1972), 「국어의 처격에 대한 연구-통합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국어연구』 27.
- 박양규(1975), 「존칭 체언의 통사론적 특성」, 『진단학보』 40, 81-108.
- 박재연(2014),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확장에서의 환유와 은유」, 『국어학』 70, 117-155.
- 성광수(1979), 「국어 조사에 대한 연구」, 형설출판사.
- 심유경(2015), 「한국어 문두 여격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재훈(1996), 「국어 여격주어 구문에 대한 범언어적 관점의 연구」, <국어학> 28, 241-275..
- 유현경(2004), 「한국어에 심리타동사가 있는가」, 『배달말』 34(0), 27-49.
- 유현경(2007), 「‘에게’와 유정성」, 『형태론』 9(2), 257-275.
- 이광호(1984), 「처격어미 {에}, {에서}의 의미와 그 통합양상」, 『어문학논총』 3(0), 87-105.
- 이기동(1981), 「조사 예와 예서의 기본 의미」, 『한글』 173 · 174, 9-34.
- 이남순(1983), 「양식의 ‘에’와 소재의 ‘에서’」, 『관악어문연구』 8, 321-335.
- 이정택(2010), 「이른바 주격 조사 ‘-에서’에 관하여」, 『한말연구』 27, 195-212.
- 이정택(2011), 「주어를 제한하는 ‘NP+에서’ 구성」, 『한말연구』 29, 281-295.
- 임지룡(2006), 「환유 표현의 의미 특성」, 『인문논총』 55,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65-300.
-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역대한국문법대계 Ⅰ 11)
- 최재희(2004),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 정음사.
- 황화상(2006), 「조사 ‘에서’의 문법 범주」, 『배달말』 39, 371-393.
- Kövecses, Zoltán. (2010), *Metaphor : a practical introduction(2dn editio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Mutsumi Yamamoto. (1999), *Animacy and Reference:A cognitive approach to corpus linguistics*. Amsterdam/Philadelphia: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Song, J. J. (1995), The Organization and Document Construction in Korean:A relational analysis, *Linguistics* 33, 763-808.
- Song, J. J. (2011), "There's more than ‘more animate’:The Organization/Document Construction in Korean", In Kittila, S., K. Väti & J. Ylikoski(eds.), *Case, Animacy and Semantic Roles*, John Benjamins, 183-206.